

라이프 · 싸이언스의 展望

— 近着 外信에서 — <編輯部>

「라이프 · 싸이언스」란 무엇인가?

外誌에는 이즈음 「라이프 · 싸이언스」란 말이 종종 나오고 있지만 이 새 單語의 갖는 『生命에 關連된 學問』이라는 뜻이고 明白한 規定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매우 넓은 範圍의 學問을 가리키는 사람도 있는 反面生命現象에 直接的 關連이 있는 學問만을 가리키는 이도 있다.

이와 같은 學問이 脚光을 받게 된 要因은 몇가지 생각될 수 있다.

첫째, 科學技術이 너무나 非人間的으로 되어버린데 對한 反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제까지 醫學이나 生物學의 分野에서 取扱되어 온 生命의 問題에 研究手段의 現代化에 依해 物理나 化學의 研究方法이 大量으로 導入되어온 結果 從來의 學門의 分野가 전혀 빛을 잃었다는 것도 들 수 있다. 그래서 세로이 從來의 研究分野에 拘束받음이 없이 今後의 人類에게는 어떠한 研究가 重要한 것인가를 再考해보면 生命에 關係있는 問題라는 主題가 떠올라 오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라이프 · 싸이언스」란 現在의 自然科學 分野만이 아니라 機械工學, 情報工學 등을 包含하여 다시 人文科學의 分野에 있어서의 社會學, 心理學도 包含시킨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現在의 人類에게 必要한 學問이 무엇인가 하는 疑問은 恒常 우리의 머리 속에 있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科學者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技術이나 發見이 人間の 幸福에 逆行하는 結果를 招來한다는 것은 避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徹底하게 科學不信에 빠져서 새로운 研究를 一切 拋棄한다는 것은 無意味한 것도 된다. 自動車를 만들면 그로 因한 公害가 생긴다. 原子力의 發見은 原子爆彈을 만들어냈다. 「라이프 · 싸이언스」의 研究에서도 例를 들면 遺傳子의 抑制가 果然 人類를 爲한 것이 될까? 最近의 實例로서 母親의 胎內에 삭튼지 얼마 안

될 胎兒의 性別이나 遺傳的 特性을 알게 되었다고 손치 드라도 이것이 人類를 爲한 것이 될지의 與否는 未知數이다.

原子力의 發見이 不幸한 原子爆彈을 만들어준 것은 슬픈 일이지만 100年 後의 人間社會가 無事히 存續한다면 原子力은 거기서 없으면 안 될 에너지의 源泉이 되어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라이프 · 싸이언스」에서도 將來를 達觀한 위에서 現在 研究를 할 必要가 있는 問題나 技術을 認識 確定하고 能率的으로 研究를 行할 必要가 있다. 化學이나 物理學에서는 人間の 個人이나 人權에 直接 影響을 주는 것 같은 主題는 없었다. 다만 戰爭의 道具로서 利用되었다는 點이 問題였던 것이다. 그나마도 最近에는 周知하다시피 公害, 環境破壞라는 따위의 人類의 幸福에 反하는 面이 크게 問題로 擡頭되고 있는 것이다. 「라이프 · 싸이언스」에서는 이 點에서 다시 愼리한 檢討를 할 必要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研究의 必要性이나 妥當性을 檢討하는 것은 단지 個個의 研究者의 責任이라는 範圍를 넘어서 「라이프 · 싸이언스」에 關與하는 者 全體, 아니, 오히려 人類 全體의 問題로서 恒常 研究方向을 조종하면서 進行시켜 나가는 것이 必要해 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研究의 集團에는 心理學이나 社會學 같은 人文科學의 分野에 있는 人士들에게 參與를 容용하고 人間 社會의 問題로서 研究의 方向을 定해 주도록 해 나갈 必要가 있는 것이다.

研究의 體制

보다 더 具體的으로 研究內容을 紹介하기 爲해 「라이프 · 싸이언스」의 研究體制를 現在의 現存大學의 各部門을 基礎로 해서 考察해간다면 어떠한 形態가 될까? 理解를 促進시키기 爲해 圖式으로 整理해 보았다. 첫째 欄에는 關與하는 學問分野를 表示하고 둘째 欄에는 當面해 생각될 研究題目, 最從欄은 이들의 諸分野에서 發展해 갈 수 있는 可能性이 있는 工業的인 問題를 表示했다.

을 工學에 받아들이기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學問을 말하고 「페턴」認識도 이 안에 든다.

그러나 여기서는 情報나 制動 같은 分野는 應用面이 크므로 獨立시켜 表에 든 것이다. 「파이오닉스」에 있어서 비근한 問題를 들면 人工臟器의 制作을 想起하는 것도 좋다.

研究 및 工業化의 問題點

여기까지는 「라이프 사이언스」全體의 紹介를 行하였지만 實際로 研究나 工業化를 進行시켜 보면 여러가지 問題나 障礙에 부딪친다. 우선 研究面을 생각해보자. 現在의 大學에서의 研究를 例로 들어보더라도 各 研究間의 相互協力の 例는 極히 僅少하다. 自身の 研究主題를 가지면 그 하나에 沒頭해버리고 그 主題의 社會的인 意味도 周圍와의 關係도 그다지 생각할 餘裕가 없게 된다. 이것은 하나의 研究를 達成시키는데는 必要한 일이지만 여기서 探擇한 「라이프·사이언스」 같이 組織을 總動員한 協力이나 社會全體의 幸福을 思考해서 研究의 方向을 定할 必要가 있을 때는 障礙가 된다. 이것을 다른 觀點에서 보면 「라이프·사이언스」에서는 研究의 方向을 그

結果를 考慮하여 變更해 갈 必要가 있다. 外部에서의 壓力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研究의 自由가 侵犯되는 일이 생긴다는 問題가 있다.

工業化에 關해로서 數많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人間의 尊重이라는 큰 前提를 認定하고 여러가지 意味에서의 倫理를 尊重하는 것을 中心으로 하면 工業開發이나 企業化에 數 많은 制約이 걸리게 됨은 明白할 것이다. 端의 으로 말하면 人命에 걸리는 問題에 關해서는 利益追求의 自由競爭에 어느 程度 制約을 붙일 必要가 있지 않을까? 現在 「라이프·사이언스」에 關係있는 研究學者들은 研究가 直接 工業的인 應用에 걸리는 경우는 稀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例를 들어 人工의 四肢 研究에서 매우 優秀한 것을 만들어도 限定된 需要와 製品은 個別的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는 데서 大量의 工業化의 可能性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食糧生産이라든가 環境의 淨化든가 하는 면에서 工業化의 展望은 밝다. 이들 領域에서는 自由競爭도 許容될 것이고 또 需要도 큰 것이다. 다만 우리 研究者의 立場에서 볼 경우 이러한 問題들은 「라이프·사이언스」의 直接的 應用分野인가 아닌가에 關해서 若干의 疑問이 남을 것 같기도 생각이 된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영웅의 후광은 현대 의학에서 하나 하나 성취되고 있습니다. 위궤양의 주원인이 펩신(PEPSIN)이라는 것이 규명되어 抗펩신제 아루사루민을 개발하였습니다.

☑ 공복시 배가 아프다 ☑ 가슴이 쓰리고 신트림이 난다 ☑ 구역질이 난다 ☑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된다 ☑ 헛배가 부르고 답답하다

이러한 증상은 위 십이지장궤양이나 급·만성위염의 경우가 많습니다.

☐ 항펩신작용(펩신 억제작용) ☐ 제산작용 ☐ 위궤양 보호작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아루사루민은 국내유일한 항펩신 위장병 치료제입니다.

抗펩신 위궤양 치료제

아루사루민 錠 120정에 1,500원

적용증 :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염 위산과다

대한외환 大韓中外製藥 技術提携 日本·주가이製藥

위궤양 치료제 아루사루민에 관하여 문의가 있으신분은 SC-5743이나 사서간 성북구 1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